

일부 경상지역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김진섭, 이동엽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 Study on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Majors in Gyeong-sang Province

Jin-Seop Kim, Dong-Yeop Lee
Dept. of Physical therapy,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서 성별, 학과 선택시기에 따른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교계열, 학제, 학년, 학과선택 영향력에서는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식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이었다. 특히, 인식만족은 학과만족도에 가장 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수준과 높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를 학생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물리치료, 만족도, 설문조사, 경상지역, 사회적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that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have with their major after they enter college; it also aimed to present the factors that affect that satisfaction. With regard to satisfaction in rel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as shown between the two genders or among the times of selection of the depar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were found for high school courses, school systems, grades, and the influences on the selection of the department.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were: satisfaction with perception, satisfaction with curricula, gener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In particular, satisfaction with perception showed the highes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for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nhance the satisfaction levels of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interest in physical therapy should be drawn from the students based on social perception and high level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ors and the students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 Physical therapy, Satisfaction, Survey, Gyeong-sang province, Social perception

Received 6 June 2014, Revised 20 July 2014

Accepted 20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Dong-Yeop Lee(Sunmoon University)

Email: leedy@sunmo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만성 성인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제활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증 감소와 기능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의 숫자가 2000년 3년제 18개교, 4년제 15개교 총 33개교에서 2013년 현재 3년제 38개교, 4년제 47개교로 총 85개교가 물리치료(학)과를 운영하고 있다[1].

과거보다 많은 대학(교)의 숫자가 증가 한 만큼 많은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사 취업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학평가에서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 추구뿐만 아니라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병행하고 있다[2].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보다는 성적위주의 진학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험을 하고, 또한 흥미 없는 전공 선택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감소하여 취업난이 가중되게 된다[3].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만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4]. 전공 만족도란 개인이 계획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이다[5]. 따라서 대학은 대학행정 중심체제나 교수 중심체제에서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체제인 고객중심 대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정비와 개혁이 요구되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6].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수의 보건계열 학과에서는 활발히 전공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김미숙 등[7]은 응급구조과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연구하였고, 이주현 등[8]은 작업치료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운주 등[9]은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최운재와 유상희[10]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13)	
	Variables	(n)	(%)
Sex	Male	376	41.2
	Female	537	58.8
School track	Liberal arts	505	55.3
	Natural sciences	264	28.9
	Vocational	121	13.3
	Arts and Physical	9	1.0
	Etc	14	1.5
School system	College	676	74
	University	237	26
Grade	Freshman	364	39.9
	Sophomore	311	34.1
	Junior	234	25.6
	Senior	4	0.4
	Before High school	26	2.8
Time	Freshman	43	4.7
	Sophomore	116	12.7
	Junior	570	62.4
	Etc	158	17.3
Influences	Family	389	42.6
	Friend	45	4.9
	Teacher	118	12.9
	Personally	308	33.3
	Etc	57	6.2

족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과에 요구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학과의 숫자가 늘어난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전공 만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물리치료학과 만족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6월 11일 까지

약 두 달 동안 실시되었다. 경상도지역 물리치료(학)과에 재학생으로, 총 25개 학교 중 14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000부를 발송하여 설문지에 무응답한 87부를 제외한 91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수율은 약 91.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rticle Number	Factor 1 Social Perception	Factor 2 General	Factor 3 Curriculum	Factor 4 Relation
1	.713			
2	.625			
3	.684			
4	.665			
5	.568			
6	.561			
7	.506			
8		.707		
9		.655		
10		.624		
11		.575		
12		.534		
13		.423		
14		.348		
15			.773	
16			.729	
17			.558	
18			.495	
19			.492	
20			.320	
21			.267	
22				.723
23				.630
24				.573
25				.564
26				.544
27				.509
28				.391
Cronbach's α	0.861	0.774	0.741	0.806

2.2 수집방법

수집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대학(교) 물리치료과에 자료 수집을 의뢰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끝나는 대로 회수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무기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를 위

해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하였다.

2.3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진희[5]의 연구에서 사용 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문헌 및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적 특성 6 문항, 전공학과만족에 관한 항목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회적 만족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일반 만족은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따른 만족, 교과 만족은 전공 교과의 내용에 대한 만족, 관계 만족은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공학과만족에 관한 문항은 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로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의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성별, 학제에 따른 만족도 평가는 독립 t-검증, 고교 계열, 학년, 학과선택 시기, 학과 선택 영향에 따른 만족도는 One-way ANOVA, 분석별 관련성은 상관관계 분석, 만족도에 미치는 인자 분석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 수준은 95% 신뢰수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경상도 지역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913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376명(41.2%), 여학생 537명(58.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 분포는 문과 505명(55.3%), 이과 264명(28.9%), 전문계 121명(13.3%), 예-체능계 9명(1.0%), 기타 14명(1.5%)으로 나타났다. 학제에 따른 분포로는 3년제 676명(74%), 4년제 237명(26%)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로는 1학년 364명(39.9%), 2학년 311명(34.1%), 3학년 234명(25.6%), 4학

년 4명(0.4%)로 나타났다. 학과선택 시기에 대한 분포는 고등학교 이전 물리치료과 선택은 26명(2.8%), 고등학교 1학년 43명(4.7%), 고등학교 2학년 116명(12.7%), 고등학교 3학년 570명(62.4%), 기타 158명(17.3%)으로 분포되었다. 물리치료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 389명(42.6%), 친구 45명(4.9%), 담임선생님 118명(12.9%), 본인결정 304명(33.3%), 기타 57명(6.2%)으로 분포하였다 [Table 1].

3.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 설문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8 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값 21 문항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총 4개 유형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식인 직각회전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적재량의 기준은 0.5로 설정하였으며, 최대 설명력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요인추출 고유값은 1.0을 기준치로 이용하였다. 요인별 분산비율은 인식만족도 요인 14.99%, 일반만족도 요인 14.27%, 교과만족도 요인 12.89%, 관계만족도 12.06%로 나타났다. 요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28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분석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요인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측정 항목의 신뢰도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인식만족도는 7개의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0.861, 일반만족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0.774, 교과만족도는 3개의 하위 요인 Cronbach's α 는 0.741, 교수 관계만족도는 6개의 하위 요인 Cronbach's α 는 0.806이었다 [Table 2].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3.3.1 성별에 따른 만족도

성별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 일반, 교과, 관계, 학과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2 고교계열에 따른 만족도

고교계열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사후 검정결과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문과, 이과, 전문계, 기타 학생들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하지만 일반, 교과, 관계, 학과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3 학제에 따른 만족도

학제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4년제가 3년제 보다 교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하지만 인식, 일반, 관계, 학과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4 학년에 따른 만족도

학년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인식, 교과, 관계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인식 만족도에서는 1학년이 3학년 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p < 0.05$), 교과, 관계, 학과 만족도에서는 1학년, 2학년이 3학년 보다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았다($p < 0.05$). 하지만 일반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5 학과 선택 시기에 따른 만족도

학과 선택 시기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고교이전, 고1, 고2, 고3, 기타 모두에서 인식, 일반, 교과, 관계, 학과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6 학과 선택 영향에 따른 만족도

학과 선택 영향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일반, 학과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일반 만족에서는 친구의 영향 보다는 담임과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였을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학과 만족도에서도 친구 영향 보다는 가족, 담임,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였을 때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하지만 인식, 교과, 관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3.7 분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3〉 Satisfaction of general characteries

(n=913)

		Social Percep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	Satisfaction
Sex	Male	3.83±0.51	3.60±0.55	3.26±0.60	3.56±0.49	3.39±0.69
	Female	3.83±0.61	3.61±0.61	3.27±0.69	3.62±0.56	3.37±0.83
	t	0.02	-0.29	-0.34	-1.79	0.34
High school track	Liberal arts	3.83±0.57 ^a	3.63±0.59	3.26±0.66	3.60±0.54	3.38±0.76
	Natural sciences	3.78±0.55 ^b	3.59±0.58	3.27±0.65	3.56±0.49	3.37±0.76
	Vocational	3.85±0.60 ^c	3.55±0.59	3.26±0.69	3.65±0.55	3.36±0.84
	Arts and Physical	4.52±0.34 ^d	3.93±0.58	3.58±0.71	4.02±0.47	4.00±0.53
	Etc	3.92±0.50 ^e	3.52±0.60	3.20±0.55	3.51±0.74	3.19±0.72
	F	3.57*	1.29	0.50	2.27	1.52
School system	scheffe	a,b,c,e<d	a,b,c,d,e	a,b,c,d,e	a,b,c,d,e	a,b,c,d,e
	College	3.81±0.57	3.60±0.61	3.23±0.66	3.59±0.54	3.35±0.78
	University	3.87±0.56	3.64±0.52	3.37±0.64	3.59±0.51	3.45±0.74
	t	-1.29	-0.99	-2.77*	0.05	-1.67
	Freshman	3.86±0.53 ^a	3.57±0.45	3.54±0.45	3.58±0.48	3.61±0.43
Grade	Sophomore	3.77±0.53 ^b	3.58±0.49	3.53±0.50	3.60±0.49	3.60±0.46
	Junior	3.68±0.60 ^c	3.48±0.53	3.35±0.56	3.45±0.56	3.46±0.52
	Senior	3.75±0.57 ^d	3.54±0.41	3.61±0.57	3.43±0.48	3.54±0.48
	F	5.92*	2.42	9.27*	5.92*	6.29*
	scheffe	c < a	a, b, c, d	c < a, b	c < a, b	c < a, b
Time	Before High school	3.73±0.51 ^a	3.51±0.70	3.04±0.65	3.51±0.58	3.08±0.77
	Freshman	3.84±0.60 ^b	3.67±0.58	3.29±0.63	3.68±0.54	3.34±0.75
	Sophomore	3.79±0.60 ^c	3.60±0.62	3.24±0.70	3.58±0.55	3.32±0.77
	Junior	3.83±0.56 ^d	3.62±0.57	3.26±0.65	3.60±0.53	3.39±0.78
	Etc	3.84±0.59 ^e	3.60±0.59	3.34±0.64	3.58±0.52	3.42±0.74
	F	0.31	0.31	1.31	0.49	1.29
Influence	scheffe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Family	3.84±0.55 ^a	3.61±0.57	3.26±0.66	3.58±0.52	3.36±0.76
	Friend	3.70±0.62 ^b	3.35±0.51	3.09±0.60	3.50±0.47	2.94±0.82
	Teacher	3.81±0.63 ^c	3.68±0.64	3.30±0.65	3.59±0.55	3.46±0.76
	Personally	3.84±0.57 ^d	3.64±0.59	3.30±0.68	3.63±0.55	3.43±0.78
	Etc	3.79±0.49 ^e	3.51±0.57	3.18±0.60	3.62±0.48	3.29±0.76
	F	0.63	2.96*	1.24	0.71	4.20*
	scheffe	a,b,c,d,e	b<c,d	a,b,c,d,e	a,b,c,d,e	b<a,c,d

*p<0.05

간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는 인식, 일반, 교과, 관계 만족도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유의수준 $p<0.01$ 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3.8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결과

학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들 독립변수들이 물리치료학과 만족도를 60.20%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F 값이 327.15로 통계적인 유

의성이 있었다.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식만족 변수($\beta=0.382$), 일반만족 변수($\beta=0.228$), 교과만족 변수($\beta=0.362$), 관계만족 변수($\beta=-0.089$)였으며 이중 인식만족도가 학과만족도에 가장 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보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Table 5].

4. 고찰

인구증가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되면서 교육공급자인 대학들 간의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

두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를 재학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일반, 교과, 관계만족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알아보고, 학과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물리치료(학)과의 경쟁력을 높여 물리치료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조사 결과 인식, 일반, 교과, 관계,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환 등[11]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성별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이주현 등[8]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만족도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김미숙 등[7] 연구에서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물리치료학과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교 계열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고교시절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타 계열 학생들 보다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개인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은 물리치료를 통하여 스포츠 손상을 받은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다른 전공 고교출신 재학생보다 만족도가 증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제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4년제 재학생이 3년제 재학생 보다 교과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재학생이 3년제 재학생 보다 교과 만족이 높은 이유는 3년제에서는 졸업 학점 120학점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수하며 학업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 되며, 실습 시간 또한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4년제 재학생은 4년 동안 140학점을 이수하며 깊이 있는 수업을 하게 되고, 특히 대학원과 연계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주현 등[8]에서는 작업치료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3년제가 4년제 보다 학과 만족도가 높게나와 본 연구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3년제가 4년제 학과보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강의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하였는데, 본 연구를 실시한 물리치료학과는 작업치료학과와 다르게 대부분 4년제 대학교로 학제가 변해가는 과정이며, 오히려 4년제 대학의 교육환경, 교육시설, 복지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실습시간이 대부분 800시간 이상으로 임상실습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서는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학과만족도에서 저학년 보다 고학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학과 만족도가 저학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면허 시험에 대한 고학년들의 불안감이 증가 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심도가 깊어지고, 취업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진희[5]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 때마다 전체 학업만족도가 낮아진다고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ctors

	Social Percep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	Satisfaction
Perception	1	.626**	.622**	.627**	.694**
General	.626**	1	.522**	.600**	.603**
Curriculum	.622**	.522**	1	.543**	.670**
Relation	.627**	.600**	.543**	1	.484**
Satisfaction	.694**	.603**	.670**	.484**	1

*p<0.05, **p<0.01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variable)	B	SE	β	t
Perception	-.623	.128		-4.885**
General	.519	.044	.382	11.869**
Curriculum	.301	.039	.228	7.703**
Relation	.425	.034	.362	12.664**
Relation	-.129	.043	-.089	-2.977**
R ²	.602			
F	327.15			

*p<0.05, **p<0.01, SE: standard error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 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성별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단, 학과 특성상 남성이 선호하는 학과나 여성이 선호하는 학과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에 따른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과를 고등학교 시절 전과 이후에 선택하는 것에 따른 만족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학과 선택 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만족도에는 일반만족과 학과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만족과 학과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본인, 담임, 부모님이 권유한 학과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과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에도 영향력이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운재와 유상희[10] 연구에 의하면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조사에서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순서로 나타났다. Shin과 Johnson [12]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다른 집단 또는 타인들과 비교한 자신의 위치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과정이 되며, 삶의 만족을 인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진동 등[2] 연구에 의하면 방사전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결정요인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사회적인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교과만족도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적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전공 교수들의 전공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은주 등[9]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 전공교과목, 학과 교수들과의 관계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일반만족과 관계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길러 주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물리치료과 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4년제 4학년 학생이 실습으로 인해 대상자 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공학과에 대한 결과만족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미비한 연구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과 만족도 및 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 관계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교 계열별 비교에서 인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학제 간 만족도에서는 교과만족도에서 4년제 학제를 가진 대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학년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고학년일 때 보다 저학년일 때 인식, 교과, 관계, 전체적인 학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과선택에 따른 영향에서는 본인, 담임, 가족의 추천으로 진학 하였을 때, 일반적인 만족과 학과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과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인 인식이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를 학생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University Information[Internet]. Korean Physical Therapy, c2014[cited 2014 April 1], Available From: <http://www.kpta.co.kr/newkpta/pds/pds.php?p=104>
- [2] J. D. Yeo , H. S. Kim, I. H. Kho, A Study on

- Department Selection Determinants and Satisfaction of Radiology Majors. Korea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1, pp. 105-116, 2012.
- [3] M. J. Lim, A study of the selective motives and satisfaction extent of social welfare majors : focusing on graduate students, Masster's.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2001.
- [4] D. Y. Park, D. Y. Kim, A Status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tudents in a Regional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Vol. 25, No. 2, pp. 1-32, 2006.
- [5] J. H. Lee,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or,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 Master's.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9.
- [6] W. M. Jeong, J. S. Lee,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Life of College by Am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the University and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of Occupational Therapy, Vol. 9, No. 1, pp. 55-68, 2001.
- [7] M. S. Kim, S. M. Park, W. Chengying, H. Y. Seo, Y. J. Joo, K. Y. Lee, E. S. Choi,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f occupation for EMT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 14, No. 3, pp. 29-40, 2010.
- [8] J. H. Lee, H. S. Kim, H. Y. Park, D. Y. Cho, J. S. Kim, S. H. Park, A Research Study About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II: Concentrate on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Confidence Level. The Journal of Korean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0, No. 1, pp. 57-71, 2012.
- [9] O. J. Ju, J. A. Jung, Y. J. Jang, A Research on Major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1, pp. 61-69, 2011.
- [10] U. J. Choi, S. H. Yu, A Research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Vol. 34, No. 3, pp. 263-271, 2012.
- [11] K. W. Chang, H. K. Lee, H. J. Jeong, Major part of a Student's Learning Whether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the School. The Journal of Society Hygienic Science, Vol. 14, No. 2, pp. 137-146, 2008.
- [12] D. C. Shin, D. M. Johnson,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 No. (1-4), pp. 475-492, 1978.

김진섭(Kim, Jin Seop)



- 2010년 2월 :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학 석사)
- 2012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학과(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Manual therapy, Motor control, Sports physical therapy

· E-Mail : skylove3373@sunmoon.ac.kr

이동엽(Lee, Dong Yeop)



- 2005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08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Neurologic physical therapy, Therapeutic exercise

· E-Mail : leedy@sunmoon.ac.kr